



## 중국 생명보험회사, 실적 제고 위한 판매채널 확대에 집중

왕양비 연구원

■ 판매채널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올해 들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음.

- 2010년 10월부터 보험회사 파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이 불허되어 생명보험 판매채널이 위축된 가운데,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가 혐오직업으로 인식되어 보험회사들의 설계사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.
  - 올해 4월 중국 인력지원 및 사회보장부가 미래 5년간 매년 15% 이상의 임금 상승률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, 9월 말까지 이미 21개 지역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 21.7% 인상했음.
  - 이에 비해 본봉이 없는 보험설계사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직업 중의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, 보험설계사의 은행 활동 금지 등에 따른 수입 하락으로 인해 재직 중인 설계사의 전직율도 높아짐.
  - 중국인수생명보험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 회사 설계사가 66.2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.4만 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10.1%에 달함.
- 또한, 긴축 정책으로 은행이 단기 금융상품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보험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됨.
- 이에 따라 금년 1월 19.3%에 달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지속적 하락하여 8월과 9월 각각 -1.6%, -2.1%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.

■ 2012년 실적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전화판매, 인터넷 판매 등 기타 판매채널 활용을 확대하고, 설계사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.

- 중국인수, 핀안인수, 태평양인수 등 생명보험 상위 3개사가 이미 전화판매 전문사이트를 개설했고 홈페이지에 전화판매 전문사이트의 연결 링크를 설정하였음.

- 이에 따라 평안인수의 경우 상반기 전화판매를 통한 수입보험료는 전년동분기대비 69.1% 증가했음.
- 또한, 한 보험회사는 출근만 해도 지급해 주는 ‘무책임 본봉’의 제공조건으로 설계사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됨.
- 2011년 4월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‘보험회사 위탁 금융기구 대리 보험업무에 대한 감독규정’ 개정안을 발표하여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, 동 개정안은 아직까지 정식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음.
- 동 개정안이 2012년에 발효될 경우 보험상품 판매채널이 증권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, 생명보험 실적 제고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(매일경제신문, 화신, 11/23 등)